

류는 가공식품 > 농산물 > 축산물 > 건어물 > 건강식품의 순이었다. 홈쇼핑을 이용한 식품 구매의 목적은 주로 가족이 이용하기 위해서이며, 명절이나 기념일 보다는 평상시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케이블 TV 쇼핑과 카탈로그 쇼핑은 30대·40대가, 인터넷 쇼핑은 20대·30대가 식품 구매 경험이 많았다. 케이블 TV 쇼핑과 인터넷 쇼핑은 대도시에서, 카탈로그 쇼핑은 중소도시에서 구매율이 높았다. 핵가족이 홈쇼핑의 구매경험이 더 많았으며, 직장 여성보다는 전업주부의 구매율이 높게 나타났다.

3) 홈쇼핑으로 구입한 식품에 대하여 불만족한 이유는 식품의 품질이 스크린이나 사진에서 본 것과 다르다는 점이었다.

4) 홈쇼핑을 이용하는 식품 구매자의 특성은 혁신성, 브랜드 민감성, 가격 민감성, 쾌락적 쇼핑의 점수가 높았다.

5) 마케팅 자극 정도는 식품 구매자는 비구매자에 비하여 '식품이 맛이 있어 보일 때', '식품이 싱싱해 보일 때', '같은 제품을 반복해서 볼 때', '사은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때',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을 때' 구매 욕구가 높았다.

6) 홈쇼핑에 대한 인지 정도는 식품 구매자는 '편리하다', '점포방문의 번거로움이 없다', '쇼핑시간에 구매받지 않는다', '지역특산품을 구할 수 있다', '상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에프터서비스를 받기 용이하다', '필요한 시점에 배달될 것이다', '냉장·냉동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의 항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홈쇼핑 업체는 식품 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식품 포장재 개발 및 배송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홈쇼핑을 이용하여 식품을 구입할 때 꼭 필요한 식품을 구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홈쇼핑 상거래의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홈쇼핑 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여 이를 고지하는 인증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P1-17】

###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취학 전 아동,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수준 비교

-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

김복희 · 이윤나 · 이행신 · 장영애 · 김초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사업단 보건영양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가정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식생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영양조사부문의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0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200개 지역에서 약 4,000가구, 1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가정의 3,482명과 취업주부가정의 2,731명의 가족에 대한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t-test를 적용하였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식품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가족 1인 당 총 식품 섭취량은 전업주부가정의 경우 1.324 g, 취업주부가정의 경우는 1.305 g이었으며, 동물성식품의 섭취량은 302.6 g과 288.2 g으로 취업주부가정에 비해 전업주부가정에서 식품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5$ ). 식품군별 섭취량의 분포에서는 전업주부가정에서는 감자류, 버섯류, 과실류, 해조류, 음료 및 주류, 우유 및 유제품 등의 섭취량이 높은 반면에, 취업주부가정의 경우는 곡류와 채소류의 섭취량만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식품 섭취패턴의 차이는 영양소 섭취수준에 영향을 미쳐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 섭취량은 전업주부가정의 가족구성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p < 0.05$ ). 가족구성원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족의 식생활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전업주부가정에 비해 취업주부가정의 아동,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이 낮았으나, 20세 이상 가족구성원에서는 주부취업에 따른 섭취량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주부의 식생활 관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연령군인 19세 이하 자녀에 대해 주부의 취업여부에 대한 식품 섭취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업주부가정의 취학 전 아동(3~6세), 초등학교 어린이(7~12세) 및 청소년(13~19세) 등 세 연령군에서 총 식품섭취량을 비롯하여 식물성식품 및 동물성식품의 섭취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p < 0.05$ ), 식품군별 섭취량에서도 곡류, 감자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등의 섭취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식품섭취량의 차이는 영양소 섭취수준에 영향을 주어 나트륨을 제외한 대부분 영양소의 섭취량 역시 전업주부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주부의 취업은 가족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은 성인 가족구성원 보다는 스스로 식품의

구매나 조리가 어려운 어린 자녀들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보육시설 및 학교 급식관리를 비롯하여 가족의 영양관리를 사회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 【P1-18】

#### 농촌거주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식행동과 건강행동의 비교

정금주<sup>1</sup> · 조영숙 · 이승교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농촌지역은 건강과 식생활의 자연친화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농약사용과 과도한 노동 부하와 함께 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농업종사자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 식품의 생산과 식행동 및 건강관리 행동에 차이를 알아보고 농업종사자의 나은 건강생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농촌을 행정구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층화추출법으로 1870명을 선발하였다. 조사지를 이용한 질문지법으로, 시군단위 조사원을 선발하고 교육을 통하여 본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알게 하였으며 조사원이 질문에 답을 듣고 기입하게 하였다. 식품생산과 식행동 및 건강행동을 유형별로 모아 점수화하였으며 점수화된 결과를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였다. 전체항목에 대하여 빈도와 %를 나타내었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chi^2$ 값을 구하였고 점수화된 결과는 F-값을 구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분포는 농업인이 1326명이었고 비농업인은 544명이었으며, 식구수는 평균 3명이었고, 남편의 나이는 농업인 64세 비농업인 67세 이었으며 부인의 나이는 58세로 같았다. 교육수준은 교육연한으로 볼 때 농업인은 13.6년이었으며 비농업인은 18.7년이었다. 부인의 가계수입 참여율은 농가가 훨씬 높아서 87%에 이르렀으나 비농가는 30%에 불과하였다. 아침식사는 농가 95%, 비농가 83%로 먹고 있었으며 주로 한식이었다. 반찬 수는 3~4종이 가장 많고(농가 60% 비농 56%), 인스턴트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가구는 농가 66% 비농가 62%를 보여 아직 농촌에서는 간편식을 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을 모아 점수화하여 비교한 식습관점수는 12점을 최우수로 볼 때 농가 8.4점과 비농 7.8점으로서 농가가 더 우수하였다. 가정 소비 식품의 생산을 비교하면 농가가 월등히 우수하여 콩나물 배추 무 깨 등 일반식품은 생산하여 먹고 있었으며, 된장 간장 장아찌 등 전통의 저장식품 만들어 활용(전체 12점 중 농가 11점 비농 7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에서 가공저장할 수 있는 짬뽕 조림 등에서는 전체 12점 중 1점으로 거의 만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량은 평균 51포기 비농가는 33포기를 담고 있었다. 농촌에 거주하여도 비농가에서는 김장을 담지 않은 가정이 18%나 되었다. 건강관리행동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일년에 한두번씩 검진을 받는 가정이 44%이었지만 전혀 검진을 받지 않는 가정이 30.4%나 되었다 이를 연 1~2회 받는 경우 10점으로 전혀 받지 않으면 0점으로 점수화하여 비교한 결과 농업인 5점 비농업인 4.3점으로서 3~4년에 한번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인에서 더 자주 받는 것으로 보였다. 목욕시설과 목욕빈도를 점수화하여 온냉시설이 있을 때 4점 및 매일 목욕할 때 4점으로 하여 부인과 합산한 12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볼 때 비농이 더 우수하여 8.3점이었고 농업인은 7.2점이었으며, 농업인의 음주습관을 보면 남편이 매일 음주(17%)와 안마시는(30%) 빈도가 비농(매일 9% 안마십 21%)보다 높아 음주습관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전체 흡연인구도 농촌주민의 48%가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농가가 비농보다 더 많이 흡연하였다. 그러므로 농촌주민의 전반적인 식습관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흡연과 음주에서 문제점이 보여 건강행동에 수정이 필요함을 보였다.

### 【P1-19】

#### 신체지수 및 스트레스의 안면 피부유형간 비교

류화라<sup>1</sup> · 박영숙

승원대학 자연요법과, 순천향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

본 연구는 건강피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립하기 위하여 외견상 건강하고 일상 활동을 유지하는 131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안면 피부유형별 신체지수 및 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피부유형은 전체안면 피부 유분량